2일 Market Index
코스피 2454.48 (-1.43)
코스닥 675.84 (-2.35)
금리(국고채 3년) 2.567 (-0.040)
환율(원·달러) 1402.70 (+8.00)

metro 경제

하나금융그룹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메모리값 폭락, HBM 납품 지연… 삼성전자 '이중고'

D램·낸드 가격, 11월 20%대 하락 中 저가 공세, 메모리값 하락 주도

삼성 HBM3E, 엔비디아 납품 지연 캐시카우 제품 부재, 재고부담 악화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폭락하면서 삼성전자에 또 한 번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HBM3E의 엔비디아 납품이 크게 지연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으로 위기 해결을 위한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2일 시장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는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 1Gx8)의 11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20.59% 하락한 1.35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기록했던 1.30달러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이다.

D램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다 2분기 조정을 맞았으며, 8월에는 2.9% 하락한 데 이어 9월에는 17.07% 급락했다. 이후 10월 들어 다소 진정세를 보였지만, 11월에는 다시 한 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메모리카드와 USB용 낸드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낸드플래시의 11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29.80% 하락한 2.16달러를 기록했으며, 낸드플래시 역시 D램과 마찬가지로 9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D램과 낸드플래시 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주요 수요 업체들이 재고를 조정하고 제조비용 효율화를 추진한 데 기인한다. 여기에 더해 중국 창신메모리(CXMT)와 푸젠진화(JHICC)가 구형 D램(DDR4)을 시중가의 절반 수준인 0.75~1달러에 공급하며 점유율을 확대했고, 이는 전체 메모리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또한, 주요 기업들의 소비자용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며 3분기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전반의 가격 하락은 삼성전자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제품군이 부재한 상태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HBM 매출 비중이 전체 메모리 매출의 30%까지 올랐고, 전체 실적의 57%가 HBM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10월 컨퍼런스콜에서 HBM3E 8·12단을 양산하고 판매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최대 수요처인 엔비디아와 관련한 확실한 납품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다.

HBM 납품 지연과 맞물려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은 삼성전자의 재고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이웃돕기캠페인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랑의열매는 2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과 함께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온도탑' 불을 밝혔다. 캠페인 첫날인 이날 삼성과 우리금융그룹의 기부로 나눔목표액 4497억 원의 14.5%를 달성해 사랑의온도탑 수은주는 14.5도로 시작했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이 사랑의 온도탑 점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 무산

우원식 "10일까지 합의" 촉구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열고 '민생·미래' 위해 여야 합의 부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이 극심하게 반발해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일이 법률로 정한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액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빠진 673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 줄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나라 살림이 민생에 실질적 힘이 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부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 의장은 정부에도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이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까지 늦어진다"며 "경제와 민생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그 책임과 부담은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에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이든 설득이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확충에 정부가 더 열심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계열사 간 합병 가액 산정기준 전면 폐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일반주주 이익 보호 의견 명시 주주간 정보 비대칭성 해결

앞으로 상장사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본거래 시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주주 보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등 경영진의 행동규범도 구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내놨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다. 2400여개 상장법인이 대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을 할 때 이사회는 합병 등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김 위원장은 "일반주주 보호원칙과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계열사 간 합병뿐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상장법인이 합병하는 등 자본거래가 발생한 경우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두고 주주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현재 공개된 제도개선안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외부평가제도 개선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 등 3가지로 추려진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한다.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물적분할 후 상장한 유망 사업 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위는 물적분할 관련 개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고 상장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물적분할시 상장을 계획하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실시간 공시하도록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 "백종원 같은 사람 1000명 육성… 양극화 타개 중산층 시대 열도록 최선"
▲ 고려대 학생 265명도 '尹퇴진' 시국선언…"대학가 침묵 깨지고 있어" /사진 뉴시스

▲ 스웨덴 총리 5~7일 방한, 尹 대통령 회담… "협력 증진 방안 논의"
▲ 통일부 "북, 금강산 골프장 클럽하우스 철거 진행"

▲ 오세훈 시장 "감액 예산보다 여당 무기력함 더 슬퍼… 분골쇄신해야"
▲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과 엮어보려 해도 연결된 것 없다" /사진 뉴시스